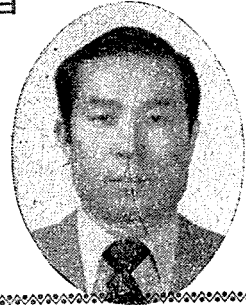


임상에 있어서

가톨릭의료인의 역할



김 부 성
가톨릭의대 내과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는 일을 탐구하고 실천함을 본직으로 삼아야 하며 그 직무의 본질상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에 투철하여야 하며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천부의 직을 소유하고 있다. 가 퍼는 사도직은 차원높은 영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임무를 이제 우리는 사랑과 신앙의 빛으로 봉사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우리가 처한 환경안에서 우리 분수와 능력대로 수행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생활하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도록 주의 길을 닦으며 걸어야 할 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우리가 생활하는 세속안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왕직에 충실히 참여하는 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 의사평신도가 사도직을 충실히 생활하고 수행하는데 가정, 직장, 사회안에서 복음을 생활화하여 우리가 영위한 일상생활 중 좋은것을 하느님께 감사의 예물로, 잘못된것을 통회와 정개의 예물로, 고통스러운 것은 인내와 보속의 예물로 만들어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해야 하며 가정, 직장, 사회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그 환경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며 나아가 현세의 모든 질서가 그리스도에게로 질서지워지

게끔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세상에 건설함으로써 그리스도 왕직에 참여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우리는 가정 직장 기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자기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그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활동으로 증거하면서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제하는데 용감해야 한다. 세상안에서 모든 봉사 생활과 활동을 영적 예배로써 하느님께 봉헌하는 진실한 의료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육체와 더불어 불멸의 영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으로써의 신앙을 갖기 고 환자를 대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이라는 책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겠다. 동시에 우리들은 현시대에 풍비하고 있는 유물론적 또는 공리적인 사조속에서 인간의 기본권 침해나 혹은 생명에 대하여 자연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을때 이를 기어히 배척하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하느님이 가르치신 양식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만이 신앙과 윤리에 일치함을 믿고 의학연구와 의료사회에 전력해야 하겠다.

인간복지에 이바지하는 가톨릭 의료인 : 의료인은 현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인간성의 봉사자로서 자기가 인간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깊이 마음에 간직

하고 있다는 것을 공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의료인의 관심의 대상은 환자의 육체적 복리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고 또 가장 중대한 것 즉 그의 불멸의 영혼에까지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의료인은 자기 직업을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며 신앙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못가지는 지식과 은총의 다행스러운 소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들은 숭고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루 해야 할 수 없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 우리의 공동구세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자기 환자들에게 더욱 밀착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우리 가톨릭 의료인에게서는 생명의 봉사라는 과제가 언제나 붙어 다닌다. 어떤 경우에 그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 생명을 세상에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수한 죄악에 의해 위협받는 생명을 지켜 유지 보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환자생애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절항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도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성하고 또 가장 현실을 끊임없이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은 의당 심각한 윤리문제들을 대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이 큰 난관에 봉착할때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할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할만한 슬기와 겸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톨릭 의료인:
우리 의료인들이 다루는 환자는 단순히 각종 증세나 병적인 기능, 손상된 장기 또는 장애받은 감정들의 집합체만은 아닌 것이며 공포심도 있고 희망도 가지고 병고에서 빠져나가려고 구조와 회복의 보증을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환자가 의사에게 처음대하는 태도에 무의식중 혐오와 공포의 기미를 띄게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환자의 갈망인즉 당장의 쾌유보다는 피로움으로 부터

의 조속한 해방이며 평안을 다시금 얻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신념이나 기대는 이런 은혜의 마술적인 출현이 의사에 의하여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이고 있다. 이런 환자의 욕망이, 이론적인 해설이나 교육으로 또는 신임 두터운 솔직성으로써 수월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의 기대는 큰데 비하여 우리 의료인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에 안타가울때가 많다. 기질적질환은 오히려 우리 의료인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는 증상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당혹시키지 않으나 감정적 기반에 기인한 병증을 빠르게 파악하는데는 시간 정력 경험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 현재 환자가 우울하여진 원인으로서 빈곤 불안정이나 직업적 내지 가정불행들을 다 파악하여 현재의 병증을 바로 해명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환자의 병증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면 과거 어릴때의 여러가지 사건, 경험으로 시작하여 현재 매일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여 빠르게 해명하여 출만한 의사의 지식 경험 정서완숙등의 폭넓은 역량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어릴때의 장기간의 걸친 병약은 피할 수 없이 지나치게 이기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생애동안 지속되는 신경증의 기저가 되기도 한다. 성인이 된후에도 질병은 가끔 의회심을 일으키게도 하고 주변의 변화는 근심과 낙담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한 가끔 초조와 우울에 빠지기도 함을 의료인들은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 그들 환자는 치료를 거절하게도 되고 또 설혹 의료인에게 진찰받으려는 용기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깊이 관련된 피로움이나 사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극히 말하기를 회피하려하는 일이 있음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것으로 늘 유의해야 할 것은 고령의 환자를 다룰때에는 이분들이 같길은 뻔하다는 사고, 따라서 죽음은 늘 가까이 있다는 공포심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가 노인환자를 다룰때 이러한 심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환자진료에 있어서 우리 의료인들은 환

자의 육체적 이학소견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환자의 미묘한 감정, 정신상태의 파악에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고려와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하느님의 사랑과 보석으로 이를 따뜻하게 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깊은 영성적 성품을 지니고 자기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는 의료인으로써 그가 돌보는 어떤 환자에게나 훌륭한 윤리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좋은 모범은 가장 훌륭한 스승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의료인은 그의 모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과 힘을 미칠수 있어야 하겠다. 많은 경우에 의료인은 환자들로부터 윤리적 내용을 갖인 사정에 대하여 노력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때 그는 매우 보배로운 도움을 베풀수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 의료인들은 특히 이러한 처지에 있어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만일 그가 적절한 윤리적 이념과 원리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줄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인생을 좋은 생활 체도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원리의 명확한 이해는 우리 가톨릭 의료인으로 하여금 고통에 대한 건전한 그리스도적 철학을 자기환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불치의 질환이나 평생불구의 신세를 벗지 못할 불쌍한 사람들은 그와같은 고무적인 인생관에서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환자들은 절망에의 숙명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게 마련인데 의료인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인 유익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이유를 가지게 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선업이라 할 수 없다.

환자진료에 있어서의 가톨릭 의료인: 올바른 진료에 있어 질병양상에 대하여 숙련되고 질병기전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으나 환자와 의사간의 효율적대화가 없을 때에는 많은 경우 비참하게도 기대되는 치료물거두지 못함을 경험함도 또한 사실이다.

질병기전의 정확한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 모든 면에서 환자의 본질적인 개성이 주요함이 시인

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개성은 개개 성격의 차이에 의거함은 물론이려니와 개성의 충분한 이해는 친밀한 대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동정적이고 식별될 수 있는 병력채취가 환자와 의사가 서로 알게되는 처음이고 제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침착한 태도로 의사가 면접하면서 환자의 문제를 주의깊게 청취할 때에는 신뢰감이 생기게 되어 곧 이어서 가정에 친족들에 대한 조사도 쉽게되고 결혼생활상태 직업상의 문제 따위와 아울러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파악되어 환자의 면모가 뚜렷해 지게 된다. 환자의 내적 외적면모가 성공적으로 파악되었을때 곧 활성을 더 얻게되어 처음에는 환자와 친근하게 되는 상태이다 그 뒤에는 진전되어 친구로써 친교를 맺을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끈질진 인내로서 환자의 호소를 들어줄 것인데 여기에서 현재의 피로움과는 관계없는 다른 문제도 알려지게 될터인데 이것이 장차의 병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소개하여 진료받도록 함이 좋다.

의료인이 갖는 동정과 은화함은 처음 낯설은 사람으로 왔던 환자의 초조와 공포의 장벽을 깨고야 말게되는 것이다.

이 장벽이 있는한 진단평가의 관철은 크게 방해받게 될 것이다. 만약 환자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병고가 과학적흥미를 자아낼뿐 아니라 자기의 안녕이나 행복과 크게 관계된다는 것이 고려될 때에는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깊은 감정마저도 토의함에 있어 좀더 개방적이 되고 솔직하게 되며 더 나아가 불쾌할 진단수거나 치료에 관련된 귀찮은 술식에도 잘 협조하여 받게 된다. 환자와 의사간의 이쁘고 좋은 감정상 신뢰감은 치료효과를 더 높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치료중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즐겁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주의하여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많이 나타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잃지도 말아야 하는데 즉 우리 가톨릭 의료인은 이런 관점에서 자기 균형이 유지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